

통권 제 185호

강남. 라 00943

2563
2019

04

불교이야기
계학이란 무엇인가 2



씨앗한알
수행해도
나쁜일이
있을수있다



결망에 담긴 이야기
신념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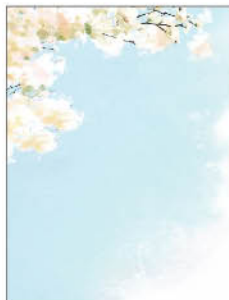
살다보면 _ 20

말^ㅁ, 의미와
품격을 담는 그릇
_ 이옥경



십선성취 _ 34

버리는 서원^{書願}
_ 덕현 전수



디딤돌 _ 56

목련꽃 지다
_ 지현 전수

2563
2019

04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4 계율이야기

20 살다보면

26 향유

32 산책

33 풍경소리

34 십선성취

38 마음의 등불

42 생활 속 식물이야기

46 백유경

48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52 새 이야기

56 디딤돌

58 씨앗 한 알

62 거꾸로 보기

66 독자기고

68 차향기

72 결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꾸기

76 되짚어 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계학이란 무엇인가 2 _ 화령 정사

봄 세우기 _ 송담 스님

승가에서의 청결 (2) _ 법경 정사

말^ㅁ, 의미와 품격을 담는 그릇 _ 이옥경

법문 들으러 간다고요? _ 강동현

계절의 입구 _ 김대곤

마지막 소원 _ 이승희

버리는 서원^{書願} _ 덕현 전수

그리운 산하, 어느 날에 그윽한 기약 이루어 _ 김성일

또 다른 세상을 꿈꾸며 _ 이태용

약은 자의 핑계 _ 동출 스님

양자강 푸른 물결 정정화 _ 보현 전수

도요새에게 봄날은 오는가? _ 정옥식

목련꽃 지다 _ 지현 전수

수행해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 _ 법상스님

한 철 노래하며 사는 인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3 _ 박현희

다도를 배우면서 _ 여순애

다식(차와 함께하는 음식) _ 김정애

신념 _ 법일 정사

금강계만다라 37존 _ 김재동

점안^{點眼}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행복한 생각이 행복한 말을 만든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자나치게 믿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나 실제로 말과 행동은
훨씬 미묘하고 변하기 쉬운 것이다.

인간은 말과 행동으로 어렵지 않게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자신을 놓아둘 수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따지고 보면
말이나 행동에 의해 생겨난다.

한 사람의 상황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드는 말의 마력은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말은 생각의 발현이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에서 나온다.

-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리처드 칼슨)

계학이란 무엇인가 2

화령 정사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계율이 정해진 내력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는 나름대로의 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 집단에서 금기시하는 내용이라든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계율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계율과 다른 종교의 계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크게 보면 다른 종교의 계율은 신 중심인데 반하여 불교의 계율은 사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든지 자기 이외의 우상을 숭배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신의 가치를 가장 첫머리에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의 명령이라고 하여 일반 상식으로 보기에 불합리한 조항을 계율에 부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차별이라든가 자기 종족 이외에 다른 종족은 무시하는 듯한 조항도 삽입되어 있으며 특히 이교도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성향을 지니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항상 종교 갈등의 배경에는 이러한 신 중심의 계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계율은 인간의 그릇된 행위를 자제하고 조율하여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를 악에서 보호하고 선을 기쁨으로써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공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불교도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계율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계율은 신이나 그 종교의 개조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상의 필요에 의해 정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계율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생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계율은 명령적, 강제적이며 지키기 위해서만 계율이 존재하는데 반하여 불교의 계율은 수행에 필요한 요소인지를 따져서 자발적이며 자율적이면서 준수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계율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십이 년 정도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 부처님의 제자가 된 비

구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규제할 규율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가자들이 급증하고 승단의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었고 따라서 아무래도 정신적 수련이 부족한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어 그들을 규제할 규율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음계가 처음으로 제정된 사연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다나라는 비구가 음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비로소 성행위를 금지하는 불음계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다나 비구는 그 당시 스스로 원해서 음행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국법으로는 대가 끊어지면 재산이 나라에 몰수되었기 때문에 외동아들이었던 수다나는 홀어머니의 간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대를 잇기 위해 음행을 했다고 합니다. 수다나는 출가할 당시에 결혼은 했지만 자식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재산이 몰수될 것을 염려한 자기의 모친이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간청하는 바람에 음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구로서는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여기에 대한 계율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또 다니야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비구는 조용한 곳에 토굴을 짓고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탁발을 갔다 오니 나무꾼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 줄 알고 토굴을 덮었던 나무를 전부 건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옛 친구였던 궁중의 목재관리인에게 가서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목재를 가져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국왕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나라의 초목

과 물은 마음껏 써도 된다는 말을 이용하여 궁중의 목재를 몰래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은 취하지 말라는 불투도계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것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승단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잡다한 문제가 발생하자 그에 따라 점차적으로 계율이 제정되어 나중에는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라는 방대한 계율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숫자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것을 구족계(具足戒)라고 하는데, 정식의 출가자로서 지켜야 할 모든 계율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갖추어진 계율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의 출가인 사미는 십계를 지켜야 하고 재가자는 보통 오계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는 모두가 구족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족계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십계, 오계 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멸하시기 전에 필요하다면 소소한 계율은 버려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율을 제정하는 목적이 심신을 바르게 갖추고 바른 선정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대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계율에 집착함으로써 도리어 계율제정의 본 뜻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해서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하실 때 수범수제(隨犯隨制)의 원칙에 따라 제정하셨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율에 대한 부처님의 이러한 유연한 태도는 계율이라는 것이 절대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계율의 세세한 부분은 거기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계율의 조항에만 얽매어 큰 것을 놓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율이 제정된 원래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율을 통하여 심신을 제어하고 그럼으로써 악을 누르고 선을 조장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므로, 계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소소한 계율을 버리라고 하신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소한 계율을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계율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출가승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가승들의 일탈한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에 대해서는 출가승이든 재가신도이든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어서 음주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특히 출가승에게 있어서의 음주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소소한 계율은 버리라고 하시면서 계율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신 것은 계율의 근본취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계를 지키는 것은 심신의 제어를 통한 지악행선(止惡行善)에 있기 때문에 계율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계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를 통하여 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비지악(防非止惡)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막고 악을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계율이 지닌 원래의 의미인데, 계가 지닌 이러한 악을 방지하는 특성을 가리켜 지지계(止持戒), 혹은 지악계(止惡戒)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비구의 250계, 비구니의 348계가 이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계가 지닌 두 번째의 성격으로는 선을 조장하는 측면입니다. 이것을 행선(行善)이라고 하는데, 계의 이러한 특성을 작지계(作持戒), 혹은 작선계(作善戒)라고 합니다. 작선이라는 말은 보시나 자비를 베푸는 것 등의 선을 행한다는 의미이지만, 여기에서의 작선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선행이 아니라 참회나 수계 등 교단내의 의례나 행사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규정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20건도(健度)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도는 팔리어의 칸다까(chandaka)의 음사인데, 수계나 포살, 안거, 출가승의 복장 등에 대한 승단 내부의 규정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1





키다리 아저씨의 집은 인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웠다. 드넓은 정원에
는 온갖 꽃이 다양하게 피어나고, 벌 나비가 춤추며 새들이 노래했다. 갖
가지 과실나무에는 철철이 탐스런 과일이 달렸다. 동네 아이들도 키다리
아저씨의 집에서 놀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키다리 아저씨가 아이들을 쫓아내고는 대문을 닫아
걸고 말았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 마음대로 노는 것이 싫어진 것이었
다. 아저씨가 대문을 닫고 난 뒤 집안이 한결 조용해졌고, 아저씨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4월도 지나고 5월도 다 갔건만 뜰에는 눈이 가득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저씨는 큰 키를 발돋움하고 멀리 담장 밖을 보았다.
그런데 이럴 수가? 담 밖에는 이미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아이들이 들
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째 이런 일이? 아저씨는 무릎에 고
개를 깊이 파묻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아저씨가 다음날 손에 선물을
잔뜩 들고는 대문을 활짝 열고 아이들을 불렀다.

“애들아! 내가 잘못했다. 오늘부터 여기서 놀아라! 자, 선물이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아저씨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당의 눈이 순식간에 녹고 꽃이 피어나더니,
벌 나비가 날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수십 년 전에 읽었던 동화의 내용이다. 웬 동화? 행복해지려면 동심으
로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 아니던가.

이상도 하지. 왜 찬바람 뽀뽀 부는 추위에 입춘^{立春}이라는 절기를 둔
것일까?

봄이 되려면 한참은 기다려야 할 텐데?

가만, 다시 보니 봄을 세운다는 뜻 아닌가! 그렇다. 마음에 봄을 세울 때
가 된 것이다. 언제까지 이불을 뒤집어쓰고 춥다고 너스레나 떨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대문을 열어젖히고 딱하니 붙여 본다.

‘봄을 세우면 크게 길하고, 밝은 기운으로 채우면 좋은 일이 많으리라
立春大吉 建陽多慶’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은 사람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것을 지키려 한다. 남에게도 다 있는 것을 자기에게만 있는 걸로 착각해서 경계하는 것이다. 좀 더 살펴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 괜스레 혼자서 난리다. 그러니 그 마음속 얼음을 먼저 녹여야 한다. 그리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 보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하고 살만한 곳인가 말이다.

한 거사님이 얘기 중에 휴대전화기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청초하게 꽃을 피운 난 사진이 있었다. 사무실에 있는 난이란다.

“난을 참 잘 키우시나 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집에 있는 난은 꽃이 안 피는 걸요.”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사무실 난은 낮 동안에 찰찰한 베란다에 두었고, 집에 있는 난은 따뜻한 거실에 두었다는 것이다. 베란대의 난은 위기감을 느꼈기에 꽃을 피웠지만, 거실의 난은 안락함에 취해 꽃대를 올리지 않은 것이었다.

성공하고 싶으신가? 행복을 느끼고 싶으신가? 지금의 안락함에서 벗어나시라. 지금 느끼는 추위 속에 봄을 세우시라. 스스로가 희망을 세우고 세상을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을 회복할 때, 비로소 꽃이 피고 별 나비 나르리니.

황벽선사께서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멋 들어진 시를 선물하셨다.

‘한 번 뼈에 사무치는 추위 만나지 않고서야 不是一番寒徹骨，
어찌 코 찌르는 매화 향기 맡을 수 있으랴! 爭得梅花撲鼻香’

향기로운 봄은 모름지기 스스로 봄을 세우는 사람의 몫이지니. ▲



승가에서의 청결 (2)

법경 정사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을 _ 47

치병^{治病}과 약식^{藥食}

출가 수행자는 승가 생활에서 청결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석존의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은 『아함경』이나 여러 율장에서 종종 보게 된다. 몸의 청결과 위생, 그에 따른 의복과 침구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청결 위생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건강문제로서 치병^{治病}과 약식^{藥食}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치병^{治病}과 약식^{藥食}에 대한 계을은 바일제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일제법은 계를 어겼을 때 참회를 하도록 하는 계법이다.

승가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석존은 약을 복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사분율』권제10에 따르면, ‘가을철이 되면 풍병^{風病}이 발동하여 몸이 바삭 마르고 또 나쁜 종기가 생긴다’고 하였는데, 석존은 이를 걱정하며 ‘어떤 방법을 써야 비구들이 약을 먹되 약과 밥을 겸한 것으로, 밥이나 건반을 먹는 것과 같이 하여도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하며 고민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고민은 수행자가 약을 먹는 것이 위의^{威儀}가 아니고 사문의 법이 아니며 청정한 행이 아니라고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석존은 병이 났을 때 약을 먹는 것이 마치 밥을 먹고 건식^{乾飯}을 먹는 것과 겸하는 것이라고 하여 때가 지났더라도 약을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한다. 그 내용이 『사분율』권제10에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지금 다섯 가지 약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바이니, 소^소와 유^유, 생소^{生小}, 밀^밀, 석밀^{石密}이다. 비구들에게 이 다섯 가지 약을 먹기를 허락하여 약과 밥을 겸해서 밥이나 건반을 먹는 것 같이 하여 추하게 보이지 않게 하리라. …중략… 그러므로 비구들에게 다섯 가지 약을 먹도록 허락하노니, 비구가 병이 났을 때에는 약을 먹어도 된다.

여기서 석존은 약을 먹되 밥, 즉 건반과 같이 먹도록 하고 약의 복용을 식사와 동일시 하도록 하였다. 이는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비구들에게 때이거나 때 아닌 때이거나 병이 있으면 이 다섯 가지 약을 먹도록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때가 아니거나 병이 났을 때 약을 먹을 수 있다고 계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행자의 위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병의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대중생활을 하는 승가에서 질병은 개인적으로 수행에 커다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존은 승가 구성원의 안정과 안락을 위하여 치병^{治病}을 위한 약식^{藥食}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병이 들었을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다. 『사분율』권제42에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다섯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 앞에 예배하고 한 쪽에 머물러 사퇴했다. “어떤 약을 먹으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씩

히고 익힌 약을 먹으라. 병들은 비구가 그러한 인연이 있으면 형체와 목숨이 다하기까지 먹어도 좋다.”

석존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비계^[脂], 즉 곰, 생선, 당나귀, 돼지, 마갈어^{摩竭魚}의 비계를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면서 다만 때에 맞추어 받고 때에 맞게 지지고 때에 맞추어 짜서 마시라고 규정하였다. 다만 약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라고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치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을 받아서 7일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한다. ‘약을 먹되 7일을 넘기지 말라’는 것인데, 왜 7일 넘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계를 어기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유통기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약을 다름에 있어서도 청결을 강조하고 있다. 약도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루약을 담을 그릇이 없으니 병^瓶을 만들고 먼지가 낄 것을 걱정하여 뚜껑을 만들라고 하였다.

병에 대한 약의 처방을 『사분율』권제42의 약건도^{藥健度}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감기가 걸리면 신보리 물을 복용하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청결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감기에 걸릴 때 마시는 신



보리물^{麥汁}은 정인^{淨人}을 시켜 그릇을 깨끗이 씻고 보리가 썩을 때까지 담가 두었다가 국물을 떠서 마시라고 하였으며, 만일 찌꺼기가 나오면 거르는 기구를 만들라 하였다. 또 그릇을 다른 비구에게 줄 때는 반드시 그릇을 씻어서 주라고 하였다. 그릇을 항상 깨끗이 씻어서 청결을 유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 약을 담아둔 병^瓶에 먼지가 낄까 걱정되니 뚜껑을 만들어도 좋다고 하였는데, 뚜껑을 만들라 한 것도 청결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치병^{治病}과 관련해서 두통이 있을 때는 머리에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르거나 콧속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이를 버리는 통을 만들고 항상 씻어서 말려 두라 하였다. 청결을 위하여 항상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병이 났을 때 필요한 약을 먹되 약을 묵히지 말라고 하였다. 약을 묵히면 더러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든 경우에 소^酥, 유^油, 밀^蜜, 생소^{生酥}, 석밀^{石蜜} 등을 먹되 7일을 지나서 먹으면 법대로 다스리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계를 정하여 어기면 규정을 어기는 것도 청정에 있어서도 약을 오래 두지 말라는 것까지도 계를 제정하였으니 승가 구성원들의 건강이나 위생관리를 위해서 석존이

얼마나 세심한 부분까지 고심했는지를 익히 엿볼 수 있다. 약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둔 것은 오늘날의 의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석존은 개인의 건강과 위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돌보도록 하고 있다. 대중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므로 개인의 건강관리, 치병^{治病}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병든 비구에게는 죽을 끓여서 주라 하였고, 병든 상좌를 위하여 작은 누각을 짓거나 가까운 곳에 구덩이를 파서 똥오줌을 누게 하거나 방안에 요강과 타구^{唾具}를 두도록 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공동생활에서 승가의 화합과 안락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치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엿볼 수 있다. 개인과 대중의 건강과 위생을 두루 감안한 것이다. 승가에서의 건강관리는 계율이자 동시에 그자체가 수행인 것이다. 이타^{利他}의 수행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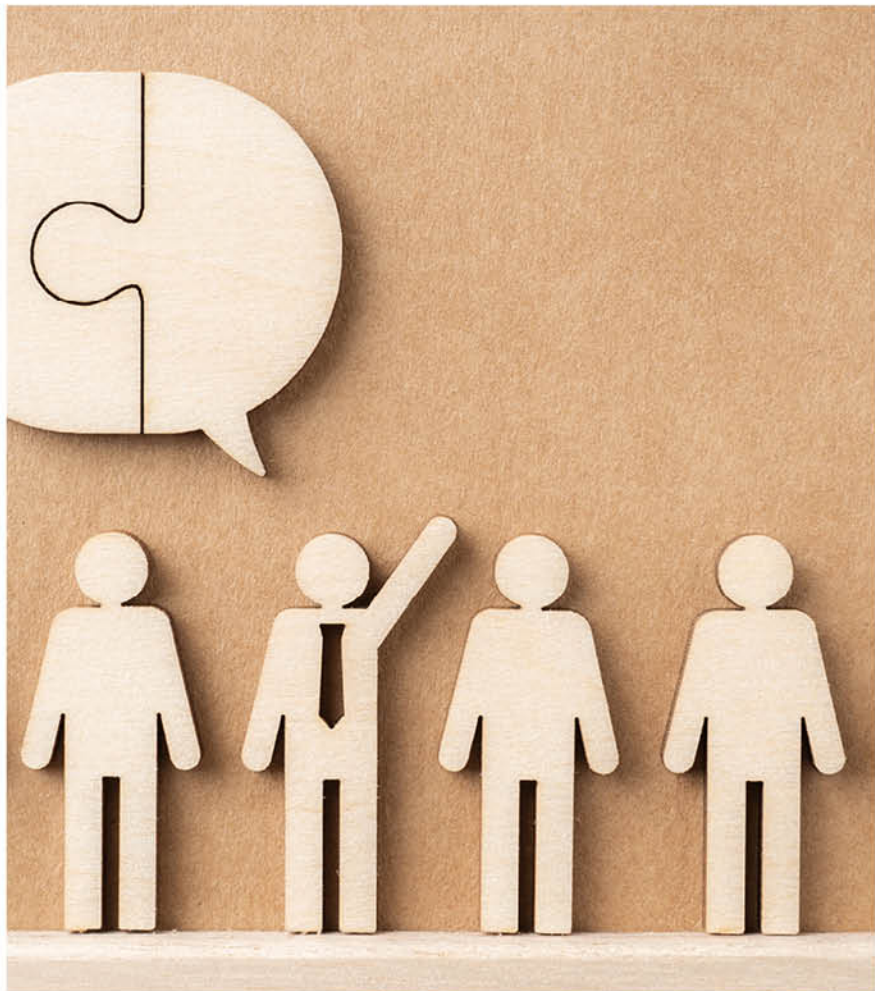


말, 의미와 품격을 담는 그릇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봄빛이 화사하게 퍼지는 이맘때쯤, 오랜만에 가까운 산을 찾았었다. 산이 높지도 가파르지도 않은데다가 산행 거리도 짧아서 몸도 마음도 가볍게 정상에 올랐다가 쉬엄쉬엄 산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뒤에서 비명에 가까운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줄리아! 안 돼! 위험해! 줄리아! 엄마한테 와! 어서!” 이에 질세라 찌렁찌렁 울려 퍼지는 남자의 목소리. “줄리아! 아빠한테 와야지. 줄리아! 줄리아!”

‘줄리아’라니? 하긴 우리말 ㄱ, ㄴ, ㄷ, ㄹ보다 로마자 알파벳 A, B, C, D를 먼저 가르치고, 옛사람들의 호칭처럼 멋진 영어 이름 하나쯤은 기본이 된 세상이 아니던가. 아마도 천방지축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놓고 비탈진 산길을 뛰어 내려오나 싶어서 나라도 아이를 붙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뒤를 돌아보니 이게 웬일? 다급하게 외치는 50대 부부는 있는데 줄리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없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내 앞을 지나쳐간 몸집 좋은 퍼그가 줄리아? 엄마한테 오라고 외치던 여인과 아빠한테 오라며 손뼉까지 치던 남자가 그들의 사랑스러운 줄리아를 좇아 바람처럼 사라진 뒤, 나는 묘한 문화충격에 빠진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다.

강아지의 엄마 아빠라...! 어떻게 사람이 강아지의 엄마 아빠를 자처한담. 줄리아라는 이름의 퍼그에게는 참 미안한 일이지만 못된 사람을 일러 ‘개 같은’, ‘개만도 못한’이라고 하는데, 강아지와 사람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가졌다면 강아지와 사람이 동급? 강아지가 아무리 예쁘기로서니 개는 개, 사람은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나로서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구도였다.

그게 2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개는 가족에 편입하지 못한, 지금처럼 이렇게 상전 대우를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한낱 애완견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나, 글을 쓰는 직업 탓에 말과 글에 결벽증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던 나로서는 반려동물을 사람과 동일시하는 자체가 영 못마땅했다. 지금도 그때의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는데, 이게 또 웬일? 우리 집에서도 흡사한 일이 일어났으니 함부로 남의 이야기할 입장도 아니게 됐다.

아들네 집에는 ‘몽치’라는, 털이 길고 까만 요크셔테리어가 있는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며느리의 지극정성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른다. 사료며 간식, 장난감, 영양제 등 의식주와 외출·미용·액세서리와 같은 전용 제품만 해도 가짓수가 엄청나고, 그러자니 나가는 돈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털이 긴 녀석이라 두어 달에 한 번은 3~4만 원을 호가하는 비용을 내고 미용실에도 다녀와야 한단다. 예방접종도 꼬박꼬박, 언젠

가 한 번은 장염에 걸려 거액의 입원 치료도 했다. 어디 나들이라도 할 참이면 품에 안거나 애완견 캐리어에 넣어서 신줏단지 모시듯..., 여러 날 집을 비울 때는 애견호텔로..., 하다 하다 얼마 전부터는 애견유치원을 보내야겠다고 꽃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육먹을 일이겠지만, 아직도 개는 바깥에서 기르는 게 옳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나로서는 영 눈에 차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가족 서열의 1순위나 2순위가 아내나 아이들이고, 남편은 애완견 다음인 맨 마지막 순위라는 요즘 세대에 혀를 끝끝 치는 건 나의 정서요, 문화인 걸. 그런 것까지 일일이 참견하다가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물론이요, 내 속이 열두 번도 더 끓어오를 일이니 그저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으로 여기며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눈 감을 수밖에.

넓은 아량으로 우아하게 포장했던 나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달한 것은 며칠 전, ‘몽치 아빠’라는 아들의 메일 닉네임을 보고 나서였다. 몽치라는 이름 뒤에다 아빠를 붙였으니 20여 년 전 나를 충격에 빠뜨렸던 줄리아의 아빠 엄마처럼, 우리 아들 역시 강아지와 부모·자식 관계? 이제 9개월 남짓한 제 아들이라면 또 모르겠다. 제 아들 제쳐놓고 언감생심 焉敢生心, 요크셔테리어의 이름을 붙인 몽치 아빠가 가당하기나 한가 말이다.

평소 잔소리를 안 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아들에게 당장 닉네임을

바꾸라고 목청을 높였다. 메일이라는 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창구인데, 게다가 첫인상과 같은 닉네임을 그렇게 경박스럽게 붙이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 강아지의 아빠도, 네 아들의 아빠도 아닌 너의 이름을 쓰는 게 옳겠다고. 그 나이에,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느냐고 욕박지르고 싶었지만 그래도 품위를 지키겠노라, ‘뭉치 할머니’ 같은 건 절대 사절이라는 말로 단단히 못을 박아 두었다.

아들에게서 메일이 왔다. 닉네임부터 얼른 훑어보니 제 이름이다. 전에 썼던, 그리고 자주 이용하지 않는 포털 사이트의 닉네임이라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었다면서, 지적해 줘서 고맙다는 내용까지 고분고분. 진즉에 그럴 일이지. 뭉치 아빠가 다 무어란 말인가. 몇 번을 양보하더라도 나는 요크셔테리어의 할머니가 될 마음이 추호도 없는데.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낮춰 부르는 몰상식한 사람을, 아이들의 아빠를 오빠라고 부르는 생각 없는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칭하는 덜떨어진 남편을, 자기보다 열 살쯤 위인 사람을 김 형, 이 형하고 부르는 용감 무식한 아랫사람을, 부하 직원에게 야, 너 하며 막말하는 상사를, 친근함의 표시인 양 말끝마다 욕을 다는 무례한 친구를 본 적이 있으신지.

올 초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놓았던 ‘서울교육 조직문화 혁신방안’이라는 것도 딱하기는 마찬가지.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지

원청, 직속 기관, 학생은 물론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사이의 호칭을 00 쌤과 00 님으로 통일한다나 어쩐다나.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한 달 만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선생님’을, 교사들 사이에는 자율적으로 ‘쌤’이나 ‘님’, ‘선생님’을 사용하도록 일부 수정이 되긴 했으나, 근본 없는 수평적 호칭도 호칭이지만 ‘쌤’ 같은 그릇된 언어가 불려올 참화가 벌써 두렵다.

말은 의미를 담고, 그 의미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 말과 사람의 품격도 달라진다. 불가의 삼업 중 하나가 구업^{구어}이며, 열 가지 악죄^{악조} 중 남의 마음을 어지럽게 망어^{망어}, 교묘하게 잘 꾸며대는 기어^{기어}, 남에게 악한 말을 하는 악구^{악구}, 남에게 이간질하는 양설^{양설} 등 말과 관련된 죄가 4개나 된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자존^{자존}이, 내세에 성불하여 사바세계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미륵보살을 높여 이르는 말이자 대자대비 부처라는 뜻을 가진 자존^{자존}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면 지나친 억측이 될까. ♫



범문 들으러 간다고요?

강동현
관성사 교도



된장이 많아서 올해는 담그지 않았다. 대신에 묵은 간장을 달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이 커졌다. 앞 베란다에 묵혀 놓은 것들이 간장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 동안에는 엄마가 해 놓으셨을 것이 분명하고 나는 살림에서 벗어 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 앞 베란단의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호기롭게 나서서 보니 장난이 아니었다. 묵은 간장을 달이기 전에 베란단의 물건을 다 꺼내고 청소부터 했다. 내가 무심하게 살아오는 동안에 물건들은 베란다에서 잊혀지고, 찾지 못해서 다시 사는 악순환을 해 왔던 것이 부끄러웠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 온 것일까 자책하면서 화도 났다. 청소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이다. 놔두려는 마음과 버리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을 달래고 달래서 결국은 베란단을 완전히 비워냈다. 간장은 또 얼마나 많은지 며칠을 달여도 아직 다 달이지도 못했다.

출퇴근 틈틈이 해서 더 더뎠다. 매실도 많고 몸에 좋다는 엑기스가 많기도 많다. 담그기만 할 뿐 먹지는 않았나 보다. 예쁜 병에 담아서 나눔을 하려고 정리해 놓았다. 엄마가 노인정에 가신 틈을 타 오래 되고 맛이 이상한 것은 슬쩍 갖다 버렸다.

그리고 나니 베란다가 그렇게 넓은 줄 몰랐고 우리 집 전망이 그렇게 좋은지도 몰랐다. 청소를 끝내고 멀리 살짝 보이는 한강을 보면서 차를 마시니 마음이 넉넉해졌다. 앞 베란다를 시작으로 뒷 베란다와 세탁실도 청소하고 엄마 방 베란다도 청소를 하고 나니 집이 더 가뿐해졌다. 재활용 분리수거 날에 맞춰 갖다 버린 플라스틱 병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 당분간은 안 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흡족하게 청소를 했다.

내가 좀 바뀌었다.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채고 있다. 나는 날마다 불공을 하고 있다. 전에도 하기는 했는데 요즘은 좀 다르다. 지난 번 불공 이후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 달마다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아채고 있다. 불공하는데도 때가 있는 것인지, 여태 해 와서 이제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내가 알겠다.

나이가 들고 아픈 데도 많고 기운이 빠져서 그런 것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엄마는 내가 불공을 좀 꾸준히 해서 지혜가 밝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좀 더 당당해진 것 같고, 겁도 좀 없어 진 것 같다.

얼마 전까지 나는 불공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무슨 염원을 담아서 불공을 할라치면 속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까 겁을 먹기도 하고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내 법문은 어쩐지 더 독한 것 같아서 더 착하게

잘 살아야겠다고 참회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큰 불공할 때마다 오는 법문을 견디기만 했던 까닭에 법문은 나한테 두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 봉사할 때 만난 보살님이 내가 지방에 있을 때 자주 듣던 큰 스님 법문을 들으러 가신다는 말을 듣고 난 뒤였다. 법문을 들으러 함께 가자고 하셨지만 나는 바빠서 못간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펄쩍 이런 생각이 들었다.

법문을 들으러 그 먼데까지 마다않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법문을 피하고 두려워만 했구나 싶었다. 법문이 달달하고 마음에 좋고 듣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또 한 번 충격이었다. 큰 스님이 하는 법문은 댄 법문이고 나한테 오는 법문은 또 다른 법문인가? 법문은 말 그대로 법문인데 말이다. 참 대단한 말이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나한테만 각별하게 주시는 맞춤형 법문을 나는 피하고 도망 다니고 법문인지도 모르고 툄툄대고 무서워하고 울고불고 했다. 법문이 무서워 당당하게 불공도 잘 못해 왔다는 생각도 들었다. 법문을 뒤늦게 알고 나서 참회했지만 다음에는 법문이 없는 불공이 되기를 얼마나 염원을 했는지 지금 좀 부끄럽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자 어찌나 참회가 되던지, 어리석게 보낸 날들이 아까워서 눈물도 좀 났다. 댄 데다 정신팔고 살고 있었으니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더 급한지도 잘 모르고 산 까닭이다.

앞 베란다에 쌓아 놓고도 못 찾아서 또 사고 또 산 물건들처럼 나는 시간을 낭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 천성은 안 바뀐다는데 어쩌면 나는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가 법문을 법문으로 못 받아들이고 깨침을 추고 있었을 때도 내 곁에서 그것이 법문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많은 보살님과 스승님한테 지금도, 앞으로도 자주 자주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달달하지 않고 힘들기만 했던 많은 법문들 덕으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법문을 나중해야 수궁하고 참회하고 깨닫는 것이 내 흠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고난이 법문으로 와도 달게 받고 어떤 법문이 와도 당당하게 기도하고 불공하시는 보살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얼마 전에 친한 사람이 자신도 나처럼 복을 받고 싶다고 우리 절에 가고 싶어 했다. 그 사람이 생각한 내 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염송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좋은지도 말해 주었다. 몇 번 염송을 따라하고 기도를 하던 그 사람은 결국 겁을 먹고 절에 다니지 못했다. 내 탓이었다. 내가 법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그만 그 사람한테 두려움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내가 당당하지 않고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 줄 수가 있을까 싶어 자책이 된다. 좋다는 것을 나만 하고 있어서 지금도 좀 미안하다. 나도 몰랐던 내 마음 속 두려움을 이제야 알고 나니, 불공도 잘하고, 법문도 잘 받고, 법문도 잘 받는다고 깨 방정도 안 떠는 든든한 보살이 되는 게 내 새로운 꿈이다. 꿈이 자주, 자주 바뀐다. ▲



온기먹은 물은
산으로 오르고 오르고

산 자락 아래로는
흔들리는 소매자락으로
있들이 눈을 틽니다

오르고
내리는 그 사이에
늪은 바위하나 어린 새싹하나
가슴으로 내어놓고

빈 하늘에
넉넉한 마음 펼치고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큰 소원은 젊음과 함께 살아지고,
나이가 높아지니 또한 자랐했던 별거 아닌 소원들은
나도 모르게 후한 마음으로 웃으며 보낸다.
한편 마지막 소원을 남기고 가면서
그 소원은 무엇이며 이루워 질 수 있을까?
맑은 정신으로 흐트러짐 없이 자는 잠에 꿈처럼 짧고 곱
게 떠나감이다.
조금은 울적하고 시름겨웠지만
한 세상 다하여 장엄한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 소원이 이루어 지기를……

2019. 1. 7.



“성취서원^{成就誓願}보다 버리는 서원이 나으니라.

애착^{愛着}, 탐욕^{貪慾}, 나쁜 습관 등을 버리는 것이 더욱 좋으니라.”

『종조법설집』 「잠언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는 보통 서원당에서 불공할 때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며 서원성취 불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진, 사업성공, 결혼, 취업, 경제해탈, 건강, 합격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서원을 주로 빕니다.

이러한 성취 불공이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버리는 서원, 즉 내려놓는 불공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버리는 불공을 하다 보면 자

신이 먼저 편안한 마음이 되어 조급함이 없어지고, 조급함이 없어지면 자기를 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어 참회도 잘 되고, 그 참회 속에서 빠른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기보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서원성취에 집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원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를 발원이라 하는데, 발원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공에는 반드시 서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서원을 세우더라도 집착과 조급함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집착과 조급함으로 오히려 진심과 원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악업을 짓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심과 원망은 퇴전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세우되, 서원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이 짐을 가져야 합니다. 서원이 애착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애착^{愛着}은 어떤 대상에 몹시 끌리거나 정이 들어서 그 대상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애착에는 사람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 물건에 대한 애착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착은 부모와 자식, 연인 사이일수록 깊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착은 이론 말할 수 없이 깊고 큼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분신인양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강요를 하거나 과욕으로

기른다면 벗어나기 쉽습니다. 무조건 최고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능력이 한참 모자라는데 부모가 욕심을 부리면 역효과만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헤쳐나 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연인사이에는 서로의 배려가 필요한데, 배려가 부족하여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 신문지상에 곧잘 보도되는 바와 같이 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집착, 애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에서 집착을 여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려는 자신의 욕심에 대한 절제이기도 합니다. 절제가 부족하면 애착이 되고 맙니다. 배려와 애착을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애착은 또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욕심은 탐욕^{貪慾}이 되어 자신을 병들게도 합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더 많이 알고 싶은 욕심, 더 올라가고 싶은 욕심, 사람의 욕심,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 가득 채우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 고통이 됩니다. 욕심이 클수록 고통

통 또한 큰 법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산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대충 산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조건, 상황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느 것에 욕심이 많은지를 스스로 알면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 조금씩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하다보면 탐욕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버리는 서원이란 서원 마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원을 세우되 서원에 집착하지 않고, 서원의 대상에 애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서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원에 들어 있는 집착과 애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착, 탐욕, 나쁜 습관 등을 버리는 불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마음이 한층 여유롭고 넉넉해집니다. 🙏



그리운 산하, 어느 날에 그윽한 기약 이루라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조선전기시대 문신, 학자



七寶山何在
明原碧海湄
沖融會元氣
磅礴擅雄奇
地護靈仙宅
人傳學士詩
天遊空有願
幾日果幽期

칠보산하재
명원벽해미
충융회원기
방박천웅기
지호영선택
인전학사시
천유공유원
기일과유기

칠보라 그 산은 어디에 있는가
명천 고을 푸른 바닷가에 있다네
천지간의 원기가 가득 모였으니
웅장한 형세 홀로 빼어났어라
땅은 신선의 집을 보호하고
사람들은 학사의 시를 전하네
선경의 유람 부질없이 바라다만
어느 날에 그윽한 기약 이루라

- 「학봉집(鶴峯集)」 권1 「시(詩)」

조선조 문신 학봉^{鶴峯} 김성일이 1579년(선조12) 함경도 순무어사^{巡撫御史}로 갔다가 그해 겨울 명천^{明川}의 객관에 묵으면서 지은 시이다. 학봉이 금호^{錦湖} 임형수(林亨秀, 1514~1547)의 유산시^{遊山詩}를 읽은 것이 이 시를 지은 직접적인 동기이다. 금호의 유산시는 전하지 않지만, 그가 지은 유산기^{遊山記}를 통해 칠보산을 보고 느낀 감흥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금호는 1539년 회령 판관^{會寧判官}에 제수되어, 임기가 끝나는 1542년(중종47) 3월 귀경 도중에 칠보산을 유람하고 「유칠보산기^{遊七寶山記}」를 지었다. 칠보산은 함경북도 명천군 상고면에 있는데, 백두산 화산대가 마천령산맥과 함께 달려 동해안에서 산지로 솟아나온 것이다. 금호의 칠보산 유산과 그 유산기는 후대에 전개되는 칠보산 유람풍조의 서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뒤를 이어 칠보산을 유람한 문인들은 대부분 금호와 함께 칠보산을 거론하였으며, 더욱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칠보산도^{七寶山圖}'가 꾸준히 제작된 것 역시 금호의 유산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 결국 칠보산의 기괴한 바위와 봉우리, 동굴, 골짜 등 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칠보산의 승경을 온 나라에 알리고자 한 그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셈이다.

학봉 역시 명천 객관에서 금호의 유산시와 더불어 유산기를 읽었을 것이다. 먼저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지방에 칠보산이 있음을 환기시켰고, 칠보산의 웅장하고도 신령스러운 형세와 더불어 금호를 드러내고 그가 행했던 유산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홀로 품은 그윽한 기약을 실천하지 못하

는 아쉬움을 담았다. 문집과 연보를 살펴보면, 추위와 어사의 공무 때문에 칠보산을 직접 유람하지는 못한 듯하지만, 금호의 시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위안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학봉이 말한 그윽한 기약은 지금에 와서 더욱 절실하다. 금호는 유산기에서, 향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리산에 심심함을 느끼고 금강산에 물릴 대로 물려서 칠보산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기대 섞인 예언을 하였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 북미협상이 결실을 맺는다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랴. 내 두 발로 금강산을 넘고 칠보산, 개마고원, 백두산을 밟고 싶은 것이 나의 첫 번째 그윽한 기약이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정동화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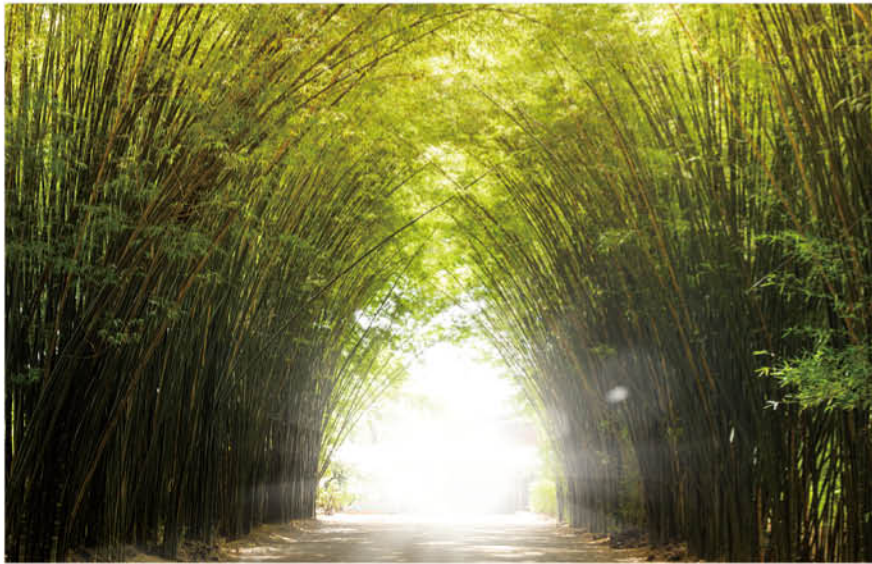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또 다른 세상을 꿈꾸며

- 만데빌라Mandevilla

이태용
원예교육가



겪어 봐야 아는 세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해 꽤 많은 인기를 끌었다. 영화는 열 살짜리 소녀 치히로가 엄마, 아빠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다양한 모험을 하며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내용이다.

영화의 시작 부분. 이사를 가던 치히로의 가족은 산속에서 처음 보는 터널을 발견한다. 치히로와 엄마, 아빠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차에서 내려 터널로 들어가게 된다. 터널을 통과하자 이 가족을 기다

리는 있는 건 새로운 세계이다. 시공을 초월한 듯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

영화 속에서 치히로가 경험하는 공간이 현실의 세계인지 꿈의 세계 인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영화를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모르지 않을까. 아주 먼 옛날 장자^{莊子}의 일화처럼 현실과 꿈의 구분이란 모호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단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터널로 인해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것, 그리고 터널을 통해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이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리고 어느 쪽이 꿈이고 어느 쪽이 현실인지 궁금하다면 터널에 직접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다. 직접 발을 내딛어 터널을 통과해 봐야만 터널 저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거침없이 쭉쭉

몇 해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느긋하게 꽃시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멀리에 있는 꽃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꽃은 다름 아닌 만데빌라. 더위에 지치고 앓고 새빨간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다.

나는 마음에 드는 만데빌라 화분을 하나 골라 집에 데려왔는데, 그 만데빌라도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집에 돌아와 베란다 한쪽 구석에 내려놓자 보답이라도 하듯 여름 내내 예쁜 꽃을 피워 주었다. 만데빌라의 넘치도록 충만한 에너지 덕분에 그해 여름은 지겹지 않았고, 가을 또한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데빌라와 함께 한 계절을 보내다 보니 이 식물에게는 새빨간 꽃 이외에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른 식물의 줄기든 덩굴용으로 세운 기둥이든 붙잡고 기댈 곳이라면 어디든 타고 올라가는 줄기. 이것이야말로 만데빌라의 진짜 매력이었다.

공간의 크기와 관계없이 앞뒤, 좌우, 위아래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모습. 언뜻 열기설기 얽혀 있는 모습이 정신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단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 만데빌라에게는 또 하나의 공간, 또 하나의 세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줄기가 만들어 준 입체적인 공간 덕분에 만데빌라의 새빨간 꽃은 더욱 신비로워 보였고, 새빨간 꽃으로 인해 공간 또한 더욱 깊은 맛을 낼 수 있었다.

주문을 기억해 봐

도시의 아이들은 미지의 공간에 가 볼 기회가 별로 없다. 늘 현실 속에 머물러 현상만을 바라본다. 가끔씩 ‘체험’이란 이름으로 다른 곳에 가 보기도 하지만, 그 또한 ‘연출되고 만들어진’ 또 다른 현실일 뿐

이다.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주문이 필요하다. 미지의 공간,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찾는 주문이 필요하다.

다행히 아이들은 그 주문을 알고 있다. 다만 잠시 잊었을 뿐이지. 아빠와 놀다가 기억할 수도 있고, 그림책을 보다가 기억할 수도 있다. 엄마와 목욕을 하다가 기억할 수도 있고, 잠자리에서 옛이야기를 듣다가 기억할 수도 있다.

주문을 기억해 낸 아이는 조심스레 주문을 외운다. 잠시 후 어디선가 터널로 들어가는 깜깜한 입구가 보이고, 아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들여놓는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참을 걸어 드디어 터널을 통과하면, 그곳에는 숲이 있다. 빨간꽃이 만발한 만데빌라의 숲이다.

만데빌라에 다가가 꽃의 향기를 맡자 아이의 몸에서 이야기가 자라기 시작한다. 아직 가 보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이의 온몸에서 자라고 또 자라난다. 아이의 현실이 꿈이 되고, 아이의 꿈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다. ♣



생각이 약은 이리 한 마리가 갠지즈 강가에 있는 넓은 바위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히말라야산에서 눈이 녹아내려 큰물이 졌으므로 바위가 물가운데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 속에 갇혀, 먹이도 얻어먹을 수 없다. 굶는 판이니 이 기회에 단식 수행이나 하자.’

이리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제석천왕이 이리의 행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약은 짐승이 핑계 좋은 김에 단식을 하는군. 저 결심이 얼마나 굳을까?’

제석천왕은 곧 염소로 몸을 바꾸고 단식하고 있는 이리 앞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건 맛있는 먹이 아냐? 단식은 그만!”

이리는 단식 수행을 팽개치고 염소를 잡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염소는 요리조리 피해다니며, 잡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염소가 잡히지 않자, 이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아, 참 내가 지금 단식 수행 중이라는 걸 잊었어. 먹이를 먹으면 안 되지.”

(본생경 300번째 이야기)

양자강 푸른 물결 정정화

보현 전수
실지사



양자강 푸른 물결 정정화

자그마한 체구에 곱게 쪽진 검은 머리에 앳된 여인이 기차에 몸을 실었다. 1920년의 어수선한 경성을 출발하여 상하이에 도착할 그녀에게 선 긴 여정에 대한 두려움 따윈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앙다문 입매와 깊은 눈매에서 남들과는 다른 기품이 느껴질 뿐이다. 상하이로 망명한 시아버지와 남편을 찾아 담담히 독립운동 길에 오른 정정화(鄭靖和)여사다.

1900년 8월 수원 유수를 지낸 정주영의 셋째 딸로 태어난 그녀는 11살이 된 1910년 동농 김가진의 셋째 아들인 동갑내기 김의한과 혼인하였다. 개화파 집안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김의한은 여사에게 국제 정세를 알려주고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며 격변의 조선에서 함께 성장했다.

시아버지 동농 김가진은 군국기무처와 중추원의 요직을 거친 인물로서 갑오경장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뛰어난 외교관이자 개혁 관료, 당대 명필이었던 그는 대한제국 대신 중 유일하게 해외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았지만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대한협회 회장을 맡아 독립운동에 전념하다 3.1운동 후 1919년 4월 결성된 비밀 독립단체인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의 총재를 맡은 인물이다.

동농 김가진은 1919년 11월 의친왕과 함께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여 나라 안팎의 관심을 고조시켜 독립운동을 촉진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본 경찰에 의해 발각되면서 수포로 돌아갔고 조선에서 대동단 활동이 어려워지자 아들 김의한과 함께 상하이로 망명하였고 임시정부의 고문으로 추대된다. 그의 나이 74세였다. 이에 여사 또한 상하이 망명과 독립운동을 결심하게 되고, 1920년 1월 초 서울역에서 의주행 열차를 타고 상하이 망명길에 오른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독립운동 자금 조달이 시급했기에 국내로 잠입하여 독립자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919년 7월 시행되어 국내외에 가동되고 있던 임시정부의 비밀연락망인 연통제의 도움을 받았다. 독립지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 강, 길 위에서 여사의 행보를 도왔다. 삼엄한 감시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자금 조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압록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여사는 체포된다. 이때 먼저 체포되어있던 이세창 요원이 그녀의 신분을 감춰주고 자신은 죽음으로 독립을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모진 심문을 받던 중 시아버지 김가진의 부음을 듣게 된다. 1922년 7월 독립에 투신한 김가진이 불귀의 몸이 되었다. 그의 장례식은 임시정부 최초로 국장(國葬)으로 치러졌다. 장례식 참석의 명분으로 풀려난 여사는 상해 임시정부로 다시 돌아간다.

여사는 슬픔에 주춤하지 않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1924년 임시정부의 형세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독립운동 세력의 분열과 대립으로 위상이 크게 손상되어있었다. 이후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고 점령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인적 물적 기반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 거기에 중국의 반한 감정이 고조됨에 따라 임시정부의 활동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하게 된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여사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수발을 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가장 어렵고 배고팠던 시기를 여사는 임시정부 요인들과 같이 보냈던 것이다. 임종을 지켜보고 부상을 치료해주고 밥을 지어주는 등, 수차례 거처를 옮겨야 했던 임시정부가 27년 가까이 유지 운영된데 있어서 여사의 역할이 컸다. 임시정부 안주인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여사는 1943년 2월 각 정파의 부인들로 결성된 한국애국부인회의 집행부 일원이 되어 각종 매체를 통해 국내외 동포여성들에게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며 독립 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의연금품을 모아 무력항쟁을 준비하는 광복군에 전달하며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갔다. 아울러 연합군 측으로부터 인계 받은 동포여성들을 교육하여 독립운동에 참여케 하고, 해외 각지의 한인 여성단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광복 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떠난 일본에 마지막 까지 남아 뒤처리를 한 후 그리던 조국 땅을 밟는다. 1982년 정부는 여사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김구 선생은 여성의 몸으로 위험을 불사했던 여사를 가리켜 ‘한국의 잔다르크’라 칭하기도 했다. 여사의 일기 <장강일기(長江日記)>를 읽노라면 파란만장하고 처절했던 그러나 흔들림 없었던 여사의 삶 앞에 숙연해진다. 민족운동을 했던 많은 남성들의 뒤에는 가난과 고통을 참고,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협력을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 곳에 있을 수 있음은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일 것이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



도요새에게 봄날은 오는가?

정옥식
조류학 박사
환경생태연구원



꽃 피고 새 우는 봄이 왔다. 푸른 들판과 산들은 울긋불긋 피어오르는 꽃향기 머금은 아지랑이와 집을 짓거나 먹이를 찾으랴 바쁜 생물들로 가득하다. 바쁘기는 갯벌도 마찬가지다. 물이 빠지면 갯벌은 먹이를 찾는 게, 갯지렁이, 고둥과 조개들의 움직임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들을 잡으려 뛰어 다니는 도요새도 있다. 도요새,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다.

일반인들이 그 이름을 접한 기회라고는 예전에 가수 정광태씨가 1983년에 불렀던 ‘도요새의 비밀’과 조용필씨가 불렀던 ‘마도요’라는 노래 제

목 정도 일 것이다. 그마저도 기억 못한다면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도요새는 도요과¹⁾에 속하는 새²⁾ 무리의 일종으로 짧거나 길거나 혹은 위아래로 흰 다양한 형태의 부리를 지니고 있다.

1년을 주기로 지구 전체를 여행하는 새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극지방에서 번식을 하고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남반구 지역 끝자락에서 월동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봄가을에 관찰되며 번식지 혹은 월동지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러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한다.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도요새는 대략 40여종이며 일반인들에게 그나마 알려진 마도요는 몸길이 60cm 정도로 도요새 무리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다.

노래 가사에도 나오듯이 도요새는 멀리 나는 새이다. 번식지인 시베리아와 월동지인 호주 혹은 뉴질랜드까지 비행거리는 대체로 2H를 넘는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일부 개체들은 번식지인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9일 동안 먹지도, 쉬지도 않고 12,700km를 날아서 이동하였다. 9일간 먹지도 않고 비행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방향을 정확히 잡고 이동하는 능력이다.

도요새들은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한다.

그리고 지방을 분해할 때 생기는 물을 몸에서 재흡수해서 사용하므로 물을 먹기 위해 비행 중간에 섬이나 육지에 내려앉을 필요가 없다. 도요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치는 능력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해답을 찾았는데 신기하게도 새들은 이동 중에 밤하늘의 별자리, 그리고 태양의 고도를 이용해서 찾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부리와 눈가에 지구의 자기장을 읽는 물질이 내재되어 있어 방향을 찾는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즉, 몸속에 나침반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도요새들은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과 방향을 잃지 않는 능력을 지님으로써 장거리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번식과 월동을 반복하며 오랜 기간 이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이들의 생존에 대해 회의적인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이용하는 도요새들 대부분이 최근 10여년간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붉은어깨도요의 경우 최근 3년간 생존개체수의 50% 이상이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붉은어깨도요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등재되었다.

이들의 이러한 가파른 개체수의 감소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갯벌 매립 때문이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이미 70%이상이 매립되었으며 지금도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역시 매립 사업이 한 참 진행중이며 갯벌 매립을 위한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도 이미 건설하였다. 이러한 갯벌 매립은 갯벌의 생물 서식지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갯벌에서 갯벌 생물을 먹고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도요새에겐 너무나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비행 중간에 들러 에너지를 섭취할 장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비행을 완수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까스로 번식지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비행 스케줄이 지체되어 도착 시간이 늦어 진탕에 번식을 포기하거나 실패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됨에 개체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에서도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새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지나는 도요새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도요새는 적게는 80만마리, 많게는 150여만마리로 보고 있다. 이미 넓적부리도요의 경우 전세계 생존개체수가 고작 200여쌍에 지나지 않아 곧 멸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작은 새도 불과 20년 전만하더라도 한 곳에서 200마리 이상이 관찰될 정도라 그리 귀한 새는 아니었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도요새들은 넓적부리도요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멸종을 우려한 국제 사회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서식지에서 종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지금이라도 간척을 멈추고 매립한 땅을 걷어 내고, 막힌 곳을 열고 다시 이들의 긴 날개 짓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봄 향기에 취해 맘껏 이 봄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누군가의 봄을 빼앗았다.

우리가 빼앗은 봄을 어서 돌려줘야 한다. 그들이 사라지기 전에.... 🌱

목련꽃 지다

-전길자

편지지에

녹색 잉크로 안부를 묻던 사람 있었지
 지워져 가는 것들 속에
 아슴히 남아 있는 몇 개의 밑그림
 아직도 대문에 기대어
 화장기 없는 내 얼굴 보고 싶을까
 목련꽃 환한 사월
 낮은 휘파람으로 창을 두드리던 사람
 지금은 투덕한 아내의 미소 앞에
 얼굴 붉히지도 않겠지
 사월은
 밤하늘 별빛 그대로인데
 환장할 목련꽃 그대로인데....

창가에 흘러내리는 빗물처럼
 색색의 물감이 번져 내리는 한지에
 꽃잎 같은 글씨로 그대의 봄 적어 보낸
 편지를 받은 적 있더이다.
 자투리 천의 재봉선처럼 이미 허술해진 기억들이
 낡은 사진첩 속에서 우르르 쏟아져
 조각조각 맞춰진 이름으로 되살아나
 한 때의 젊음을 소환 하더이다.
 굳이 세월을 더듬지 않아도
 새순 돋아나며 토해내던 사월의 그 여린 슬픔
 차마 이기지 못한 파릇한 눈물은
 버리지 못한 편지에 고스란히 머물러 있더이다.

 지나가다 만난 바람이 하늘에 잠시 머뭇대고
 목련은 그새 붓끝 같은 입술 뽕죽 내밀어
 구애하던 해질녘.....
 하얀 목련꽃 저리도 애잔히 어여쁜 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이
 꽃
 비
 되
 어
 내리던 봄날 어느 하루. ♣

수행해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

법상 스님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선업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너무나도 큰 악업을 많이 지었다면 당연히 그 악업도 받게 됩니다. 선업을 짓고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쁜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어왔던 과보를 받는 건 받는 문제이고, 내가 새롭게 짓는 건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행을 잘하는 참 존경할만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지켜보고 있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수행을 하면 뭐해?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은 우주법계의 이치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과거에 지은 업장을 녹임과 동시에 그 괴로운 일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금강경』에서도 ‘이 경을 수지독송 하는데도 만일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그 이유는 웅당히 악도에 떨어질 만한 전생의 죄업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은 곧 소멸될 것이고, 따라서 마땅히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업신여김을 당했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은 소멸될 것이고,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생애를 나고 죽고 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삽니다. 그 중 어느 생은 나이 30세를 살다 죽었고, 또 어느 생은 90세까지 살았으며, 또 어느 생은 1살도 안 되어 죽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살도 안 되어 죽은 사람이 그 다음 생에는 9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생에 몇 살을 사느냐를 가지고 과연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본다면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그것은 별 차이가 되지 못합니다.

천상세계에서는 인간계의 1,600년이 그곳의 하루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100년을 살다왔든, 10년을 살다왔든 천상세계에서 본다면 그저 잠깐 다녀온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죽인 죄로 어느 한 생은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업을 받아야 할 업보가 있다고 해 봅시다. 그 사람은 40세, 50세 되어 결혼해 자식 낳고 성공하며 잘 살다가 갑자기 죽는 것 보다 차라리 너댓 살까지 살고, 혹은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 빨리 죽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생사의 관점에 얽매어 사는 우리에게서는 살아있는 것이 전부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는 한낱 하룻밤 꿈과 같을 뿐입니다. 아무리 나쁜 꿈을 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그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이 생애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꿈이며, 환상일 뿐이지요. 우리는 그 꿈의 이야기, 한 생애 펼쳐진 삶의 이야기 너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되지 않는 꿈 깬 이의 삶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방편이지만, 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스토리, 인생사의 굴곡에 일희일비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삶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한 꿈의 일부일 뿐, 그것이 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선업을 받든, 악업의 과보를 받든, 좋은 일이 생기든, 괴로운 일이 생기든, 남들이 나를 칭찬하든 업신여기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분별 너머에 그 어떤 분별이나 판단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입처개진이라는 참나의 실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란 주어진 삶의 스토리에 속지 않고, 그 너머의 진실을 보려는 자입니다. ♫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한 철 노래하며 사는 인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3 - 개미와 베짖이

박현희
사회과 교사



개미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버렸다

개미의 삶이 나쁜 이유 세 번째는 개미가 미래를 위해 살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삶은 오늘의 행복을 갉아먹는다. 미래를 위해 사는 게 뭐 어떨기에 그러냐고?

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미리 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초등학교 공부를 시작하고, 초등 고학년이 되면 중학 대비를,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대비를 한다. 준비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다음 학기에 배울 것을 이번 방학에 미리 공부하는 것은 선행 학습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왜 다들 미리 공부를 할까?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그래야 아이가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내가 보기에 선행 학습을 하고 상급 학교인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은 조금도 편해 보이지 않는다. 상급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상급 학교에서도 고생스러운 과정을 더 어린 나이에 당겨서 공부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자꾸 앞당겨 살기를 권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바빠진다. 과정을 앞당겨 공부하려다 보니 아이들 앞에는 늘 가야 할 길이 멀다. 하루 네 시간씩 투자해야 따라갈 수 있는 학원의 교육 과정을 소화하려면 아이들은 엄청나게 바쁜 일과를 보내야 한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충분한 독서로 다져진 탄탄한 언어 능력(한국어 능력)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다. 빈곤한 언어 능력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아이의 발목을 잡는다. 영어 공부를 제이무리 많이 해도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아이들의 영어 능력이 모국어인 한국어 능력을 앞서갈 수도 없다. 그런데 아이들은 독서를 즐기기는 너무 바쁘다.

개미는 안전만을 추구한다

개미의 삶이 나쁜 네 번째 이유는 개미가 안전한 삶을 바라기 때문이다. 세상 어떤 선택을 하든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안전한 삶의 대가는 도전 없는 삶이다. 베짚이는 도전으로 가득한 위험도 높은 일을 선택했다. 당연히 그의 미래는 불안하다. 하지만 베짚이는 삶의 한 시기를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일에 바쳐 충만함을 얻었다. 인류는 모두 이렇게 삶의 한 시기를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일에 바친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다.

모차르트가 노년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충실한 궁정악사로 살았다면? 체 게바라가 다가올 겨울의 굶주림이 두려워 병원을 개업하고 소화 불량이나 감기 환자에게 처방전이나 발급하면서 살았다면? 그 어떤 상상도 이보다 희극적이면서 동시에 비극적이지는 않으리라.

그러나 베짚이가 모차르트도 아니고 체 게바라도 아니라면? 그저 철모르는 게으름뱅이에 불과하고 개미들에게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재능도 없으면서 설치고 있을 수도 있고, 대열을 승리로 이끌 능력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이들이 어떤 일을 할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폐를 끼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간다

가난한 화가가 있었다. 어찌어찌 그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된 이웃 농부가 약간의 돈을 융통해 주어 그는 끼니와 그림 재료를 장만할 수 있었다. 고마운 마음에 그림 몇 점을 가지고 농부를 찾아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앞으로는 비싸게 팔릴 수도 있는 작품이니 받아 달라고 했다. 자비심 많은 농부는 거절했다. 그냥 선의로 한 일이니 그림은 도로 가져가라고, 내게는 그 그림이 필요 없다고.

공짜로 주겠다는 그림마저도 거절당했던 이 가난한 화가는 누구일까?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이다. 그는 한 번도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고, 공장에서 일하지도 않았다. 동생에게 빌붙어 살면서 오직 그림만 그렸다. 그 시절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어떤 개미가 고흐 베짚이를 손가락질할 것인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폐를 끼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개미와 베짚이도 서로에게 폐도 끼치고 은혜도 입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사는 세상이 살 만한 곳이 되려면 한철 노래하며 사는 인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

-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부산 정각사에는 다도반이 있다.

오랫동안 다도교육에 몸 담고 있는 김정애 보살님이 이끄는 곳이다. 선생님은 “예를 갖추며 차를 함께 하는 것은 다른 이가 기분이 좋을 것이며, 상대를 배려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다스리게 하는 자리가 된다”고 한다.

인자하신 선생님의 교육에 나도 모르게 다도인이 되어 버린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다도반 보살들이 일반 보살보다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고 그 뜻을 따르는 다도반의 보살님들과 함께 해서 난 행복하다. 이제 다도반에 참석한지도 두 달이 되어가는 나, 처음엔 행동에 예의가 없었다.

지금은 다도반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알 정도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 다도반에 있으면서 매주 발전되는 나를 본다.

선생님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차를 마신다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예의를 갖추어서 마신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해보지 않고는 모를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이 기다려진다.

설을 지내면서부터는 한복을 입고 수업을 하는데 회원들 모두 아름답다. 녹차를 마시고 나면 흑차인 보이차를 마신다.

이때 담소를 나누면서 마시는데 차의 풍미를 맘껏 느낄 수 있다.

특히나 여자들만 있는 모임이라 살림살이에 대한 정보가 솔깃하게 들린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흥미진진하다.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설날 전에는 꽃감, 대추, 잣, 호두를 이용해 다식도 만들었다. 함께 만든 다식을 집에 가져와 가족과 같이 먹으니 기쁨이 두 배가 되기도 하였다.

차를 마시고 다식을 먹고 담소를 나누면서 몸이 정갈해지고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 된다.

그리고 즐거워진다.

많은 보살님들이 알고 있듯이 다도반은 행사에 많이 참석한다. 행사는 여인의 살림살이와 비슷한 점이 많다.

청소를 해야 하고 다기를 깨끗이 해서 정돈해야 한다.

다식도 준비하고 상차림에 꽃도 꽂아야 한다.

이런 모습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경험했다.

우리 총지종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이 되는 다도반 보살님들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다.

이분들의 아름다운 행보에 감사를 보낸다. ♫



다식 차와 함께하는 음식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차를 마실 때 함께 먹는 음식을 다식이라고 합니다.

다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음식으로서 차와 함께 발달 하였는데 차 마실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양전한 과자입니다. 차는 양전하게 마시는 것이니 함께 먹는 음식이 입안에서 소리가 나거나 크기가 커서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식은 밤, 대추, 송화, 쌀, 깨 등의 가루를 꿀과 엿 등으로 반죽하여 다식판에 찍어내는데 다식은 단맛과 함께 원 재료의 고유한 맛이 잘 조화된 것이 특징이며 생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은 볶거나 삶거나 말리고 찌고 또 발효시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꿀이나 조청 등을 넣어 반죽하여 먹기에 알맞은 크기로 다식판에 넣고 박아 낸 것입니다. 정교하며 아름다운 문양의 다식판은 글귀(수복강녕壽福康寧)와 기하문양, 문자문양, 꽃문양, 무병장수를 뜻 하는 거북문양 등을 판에 박아 만듭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정신적이고 주술적 의미를 다식에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차와 함께 해 온 다식은 그 유래가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목은집”에서는 팔관회에 썼던 다식의 맛이 연하고 좋았다는 시가 있었으므로 고려에서 연례용 음식으로 썼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식의 어의에 관하여 ‘민족문화대백과’에서

“차는 본디 물에 달여 마셨다 그런데 송나라에는 차 잎을 찌서 일정한 무늬를 가진 틀에 박아 고압으로 짜 내어 다병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을 말려두었다가 제사 때는 가루로 만들어서 사발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서 대나무 솔로 휘저어 마신다. 이것이 점다이다. 그러던 것이 점

차 차 대신에 곡물에 꿀을 섞어서 반죽하여 다병을 만들 듯이 다식판에 박아 내어서 제수로 쓰게 되었다. 그래서 이름만 다식으로 남아있고 실물은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식은 조선시대에는 제례나 혼례의 큰 상차림 등 의례상에 올리는 필수품의 하나였고 제사상이나 잔치용 큰상에는 갖가지 색의 다식으로 글자와 나선문양을 만들어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주로 제례에는 검은깨다식, 송화다식, 쌀다식 등을 썼으며 혼례에는 화려한 색의 노란송화다식, 파란콩다식, 누런 쌀다식, 까만 검은깨다식, 분홍빛 녹말다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식을 만드는 법으로 송화다식은 봄철의 송화를 말려두었다가 꿀 또는 조청에 반죽하여 만들고 밤다식은 삶은 밤의 껍질을 깨끗이 벗겨 곱게 찼은 후 계피가루나 꿀 또는 조청을 섞어 반죽하여 만듭니다. 그리고 검은깨다식은 검은깨를 살짝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기름이 나오도록 오래 찼은 것을 꿀 또는 조청으로 반죽하여 만듭니다.

완성된 다식에서 우리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와 재료 본연의 아름다운 빛깔이 입안으로 들어가 어느 것은 부드럽게 녹아 없어지고 어느 것은 입안에서 한참동안 머물다가 녹으며 또 어떤 것은 끈기가 있어 조금 머물렀다가 목에 넘어가는데 차와 함께하면 둘이 어우러져 여러 가지 맛과 향을 남겨줍니다.

전통다식의 종류

- ① 곡물로 만든 다식 : 찹쌀다식, 보리다식
- ② 견과로 만든 다식 : 호두다식, 잣다식, 밤다식
- ③ 종실로 만든 다식 : 흑임자다식, 콩다식
- ④ 한약재로 만든 다식 : 신검초다식, 산약다식
- ⑤ 꽃가루로 만든 다식 : 송화다식
- ⑥ 동물성 재료로 만든 다식 : 육포다식, 광어다식

현대 다식의 종류

- ① 유과 : 강정류, 산자류
- ②정과 : 연근정과, 죽순정과, 인삼정과, 당근정과, 사과정과 등
- ③ 유밀과 : 약과류, 한과류
- ④ 속실과 : 조란, 울란, 강란
- ⑤ 과편 : 차편, 호박편, 모과편, 앵두편, 살구편
- ⑥ 말이 : 꽃감말이, 대추말이, 수삼말이
- ⑦ 강정 : 땅콩강정, 흑미강정, 깨강정, 쌀강정

차와 잘 어울리는 다식은 차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다과로서 우리 전통 먹거리인 떡과 함께 약과 한과류 등은 현대의 넓은 의미로 다식에 포함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의 성품을 크게 해치지 않으며 차와 함께 즐겨먹는 부드러운 간식들도 생활다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념

범일 정사
벽룡사 주교



어느 날 왕이 무거운 돌을 지고 다니는 한 사람을 발견하였다.
그는 너무나 힘겨워했다.
왕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왕이 명하기를 “그만 그 큰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아라.”
왕의 명령에 따라 돌을 내려놓았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에게서 소란이 일어났다.
누가 밤사이 큰 돌을 길 한복판에 놓아두어 다니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왕에게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답은 거절이었다.
‘왕이 한번 말한 것을 다시 바꾸면 왕의 말에 권위가 없어진다.
왕이 한번 한 말은 다시 바꿀 수 없다.’는 이유였다.



왕이 죽은 뒤에도 길 한 가운데 있는 돌은 치워지지 않았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 돌은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잘못된 신념에 의해 많은 사람이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잘못 판단한 일에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왜? 바꾸지 못하는가.
길 가운데 돌, 치우면 되지. ♣



금강계만다라에 등장하는 37존은 모두 진리로부터 전개된 동일한 존재로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불보살을 의미한다. 5불은 여래의 세계를 펼쳐서 5가지 양상으로 살펴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완성이 5불이고, 비로자나불이다. 수행자가 진언행을 통하여 얻게 되는 최고의 경지는 바로 비로자나불로 표현된다. 37존은 5불, 16대 보살, 4바라밀 보살, 8공양보살, 42보살을 의미한다.

금강계만다라에 등장하는 각 불보살은 비로자나불의 본성을 나눈 4불로부터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머지 32보살이 전개된다. 여기서 37존을 각각 그룹별로 그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로자나불로부터 4방에4불이 시현되는데 그중 아축불은 견고한 보리심, 보생불은 중생들이 지닌 성불의 가능성, 아미타불은 보리심을 증득함과 설법으로 의심을 끊음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성취불은 중생 교화의 무한한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즉, 5불에서 비로자나불은 모든 불보살의 근본으로 37존은 비로자나불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4방 4불로부터 각각 4방으로 시현된 16대 보살은 중심이 되는 4불의 성격에 따라 보리심의 부류, 공덕의 부류, 지혜의 부류, 정진의 부류로 나누어진다. 먼저 보리심류의 첫째인 금강살타보살은 중생이 모두 견

고한 보리심을 지녔음을 일깨우며, 금강왕보살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공덕, 금강보살은 중생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물게 함, 금강희보살은 보리심의 사업에 대해 환희하는 공덕을 각각 상징한다.

공덕의 부류에 속하는 4보살에서 금강보보살은 중생들에게 보배와 같은 성불의 가능성을 일깨우며, 금강광보살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금강당보살은 중생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활동, 금강소보살은 스스로도 법의 기쁨을 맛보며, 중생들도 큰 안락을 받게 함을 상징한다. 지혜부류의 4보살 가운데 금강법보살은 중생의 청정을 지켜주는 활동이고, 금강리보살은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 어리석음을 타파하며, 금강인보살은 법계만다라에 들어와 깨닫게 하며, 금강어보살은 지혜의 비밀한 언어로써 그 경지를 중생들에게 설한다. 정진의 부류에 속하는 4보살 가운데 금강업보살은 못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활동을 행하며, 금강호보살은 어려운 적을 대상으로 정진하는 활동을 상징한다. 금강아보살은 일제 잘못된 견해와 미혹과 두려움을 없애며, 금강권보살은 번뇌로 깊은 존재를 이끄는 특징이 있다. ▲

점안

點眼

點 點 - 점

眼 眼 - 안

- ①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을 처음으로 봉안하는 의식.
- ② 불상이나 불화, 불탑, 불단 등을 새로 마련하여 봉안하면서 행하는 의식.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자들과 논쟁이 붙는 질문이 몇 가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왜 불자들은 우상숭배를 하느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돌이나 쇠붙이를 향해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느냐”고 따져 묻는 경우다.

단지, 부처님 모양을 본 따 흙이나, 돌, 나무로 만든 조각품일 뿐인데 왜 그곳을 향해 절을 하며, 숭배하느냐는 비웃음이다. 그러나 이런 이웃 종교인의 생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기는 물음이다. 불자들이 항상 예경의 대상으로 의지하는 불상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닌, 특별한 의식을 거쳐 이미 부처님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불자들이 예경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 특별한 의식이 바로 점안^{點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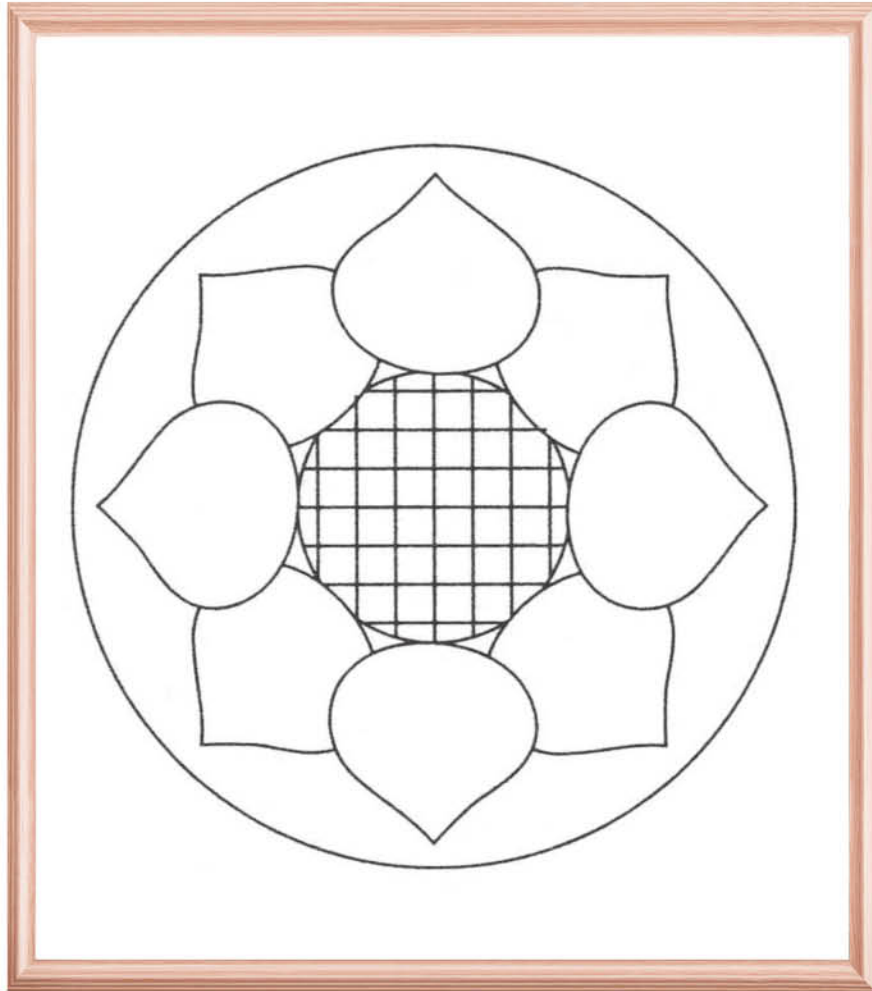
글자 그대로 불상의 눈에 점^點을 찍음으로서 불상의 눈을 뜨게 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점안은 개안^{開眼}, 또는 개광명^{開光明}이라고도 불린다. 새로 그렸거나 조각한 불화나 불상을 전각에 처음으로 봉안하고 행하는 의식이 바로 점안식이며, 이를 통해 비로소 불상은 예배대상으로 성화^{聖化}된다.

점안식은 몇 가지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하나는 점안식을 거행할 때 지계가 청정하고 수행에 힘쓰는 스님을 모시는 일이다. 또 하나는 점안의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화처럼 평면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상이나 탑 등 부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사리나 경전을 넣는 것이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며,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된다^{自燈明 法燈明}”고 강조하셨다. 우리가 불상을 모시고 불상을 예경하는 것은 불^佛과 법^法에 귀의하고 예경하는 것이다. 卐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 독자 솜씨



▲ 실지사 김서현, 나현 어린이



▲ 실지사 이서아 어린이



▲ 서울 이수민 님



▲ 대전 김미영 님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충지증 증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발행일 총기 48(2019)년 4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미영	한영희
허지웅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종조법설집

제2장 수행편 p.132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동시同時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불법佛法이다.

사람들은 다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말하나 둘은 양립兩立할 수 없는
모순적矛盾的인 개념概念이다. 민주국가民主國家가 가장 중요시重要視 하는 것은
자유自由이다. 그런데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은 일치一致하지 않는다.
인간人間이 자유自由로우면 불평등不平等하여 진다. 그 불평등不平等を
제거除去하기 위해서 통제統制하면 부자유不自由하게 된다.
사회주의국가社會主義國家에서는 평등平等을 유지維持하기 위해서 자유自由를
통제統制한다. 그런데 가장 자유自由스러운 사람은 걸인乞人이요, 가장
평등平等한 곳은 감옥監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걸인乞人이 되는 것과
감옥監獄에 가는 것을 원원치 않는다. 그러나 불교佛敎는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다같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해탈解脫을 통達하여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한꺼번에 얻는다.
불교佛敎처럼 자유自由스러운 것이 없고 평등平等한 것이 없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한유총, 김학의, 버닝썬, 미세먼지,
조선일보 방씨 일가, 장자연, 교학사 등등...
이번 3월은 정말 정신 없는 달이다.
이제까지 3월은 새학기, 새봄, 새친구 등으로
늘 설레이는 달이었는데...
이번 3월은 한유총 사태로 시작하여
교학사 사건까지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인간답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엄마로 살아야 할까?
나같이 평범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울려면
불합리와 모순에 늘 맞서야 하는데...
왜? 나는 더 움츠려 들고, 겁이 나는 것일까?

다시 한 번 엄마로서 에너지 충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내어 본다.
더 좋은 인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화사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4월호



미움속에 살면서 미워하지 않음이어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여라

사람들 서로서로 미워하는 그 속에서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자

- 법구경 -